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www.sportsdonga.com

KT위즈 우승 축하광고 낸 '아름다운 패자' 두산 화제 ……6면

정그린 멘탈코치·이시우 스윙코치가 말하는 '고진영 올해의 선수·상금왕·다승왕 싹쓸이' 비결

"강한 승부욕·내려놓음·최적스윙 3박자"

LPGA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시즌 5승…손목 부상 이겨낸 투혼의 드라마 ▶2면

"내가 세계 여자골프 '퀸'이다." 고진영이 22일(한국시간) 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양팔을 번쩍 치켜들고 환호하고 있다. 고진영은 올해의 선수와 상금, 다승왕 등 3관왕에 올랐다. 네이플스(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멘탈코치' 정그린

"손목 너무 아파 울면서도 끝까지 최선 다짐
순간에 집중하며 비울 수 있는 멘탈 강점
직관과 느낌으로 극도의 긴장감도 이겨내"

정그린 그린코칭솔루션 대표 이시우 빅피쉬아카데미 원장

▶'스윙코치' 이시우

"고 프로는 밸런스 깨지면 손목 움직임 많아져
몸통 회전 위주 샷으로 정확도·비거리 향상
진통제·아이싱 투혼…좋은 결과 이어져 기뻐"

고진영(26)이 22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1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라 올해의 선수와 상금, 다승왕을 차지하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넬리 코다(23·미국)와 주요 타이틀을 경쟁하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고진영답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을 '멘탈 코치'인 정그린 ㈜그린코칭솔루션 대표이사(39)와 '스윙 코치' 이시우 빅피쉬아카데미 원장(40)에게 들었다.

●한 차원 다른 승부욕

정 대표는 "고 프로가 1라운드 때 왼쪽 손목이 너무 아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속상해했다. 많이 울었던 것 같다"며 "기권을 고려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대회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선수의 도리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고진영이 신인이던 2014년 2시간짜리 성향진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처음 만난 뒤 LPGA에 진출한 2018년부터 그를 돕고 있는 정 대표는 '인간 고진영'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정 대표는 "이번 대회는 선수로서 본분을 다하겠다는 기본적인 스포츠정신이 우승이란 값진 열매로 이어졌다. 고 프로는 누구 못지않은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며 '승부를 봐야하는 최종전 마지막 라운드'에서 9언더파를 몰아치며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로 '내려놓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극도의 긴장감과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강한 목표를 가진 상태에선 때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정 대표는 "고 프로는 강한 승부 근성과 함께 순간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한 차원 다른 승부욕'을 갖고 있다. 스스로를 조절해 '적정선'을 찾아낼 수 있는 심리 상태를 터득했고, 이는 숱한 트레이닝의 결과"라고 부연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꼭 우승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직관과 느낌에 이끌리도록 했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되찾은 고진영만의 스윙 패턴

고진영은 지난 시즌부터 '최적의 스윙폼'을 찾고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나 시행착오 탓인지 올 시즌 초반 컨디션 난조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8월 도쿄올림픽을 즈음해 1년 여 만에 고진영과 다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 이 원장은 "고 프로와 함께 했을 때도 세계랭킹 1위였고, 헤어질 때도 1위였지만 다시 만났을 때는 2위였다. 1위를 되찾는 게 목표였다"고 털어놓은 뒤 "깊은 대화와 많은 연습을 통해 올 후반기에는 스윙 패턴에 많은 변화를 줬다"고 말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넷플릭스 '지옥'으로 '세계 1위' 글로벌 무대로 발돋움한 유아인

작년 #살아있다 35개국 1위 이어 또 정상
美 애니메이션 '아케인'과 넘버원 각축전

유아인은 '지옥'의 대본에 "미쳐버렸다"고 만족해하며 세계무대로 향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배우 유아인이 새로운 글로벌 무대의 막을 올렸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장 많이 본 TV쇼(프로그램)' 1위에 오른 '지옥'이 디딤돌이다. 이미 다양한 작품을 통해 해외에서 쌓아온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할 기세다.

'지옥'은 19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공개돼 하루 만인 20일 글로벌 1위에 올랐다. 물론 박정민, 김현주 등 동료들과 함께 일궈낸 성과이다. 다만 유아인이 최근 몇 년 사이 나라 밖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상을 과시해온 만큼 '지옥'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예사롭지 않다.

●"알을 깨고 나온 근사한 추상화"

유아인이 아시아권을 넘어 세계적 무대에 오르기 시작한 건 2018년이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레드카펫을 밟았다. 그는 당시 "알을 깨고 새롭게, 갓 태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버라이어티는 "고요한 장엄함", 영국 스크린데일리는 "장관을 이루는 절제" 등 극찬을 보냈다. 미국 유력 신문 뉴욕타임스는 그를 '2018 최고의 배우' 명단에 올렸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카리스마 넘치는 톱스타"인 그가 '버닝'을 통해 "암울하고 충격적인 인물"로 "근사한 추상화"를 그려냈다고 호평했다.

뒤이어 유아인은 영화 '#살아있다'로 전 세계를 무대 삼았다. 지난해 6월 극장에서 개봉해 감염병 확산 사태 속에서도 190만 관객을 불러 모은 그는 '#살아있다'를 다시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로 공개했다. 9월 넷플릭스 '전 세계 가장 많이 본 영화'로 35개국 1위를 차지하며 명성을 굳혀갔다.

그리고 다시 '지옥'을 정상에 올려놓았다. '#살아있다'에서 좀비떼의 공격에 맞서 처절한 싸움을 벌인 그는 '지옥'에서 초자연적 현상으로 숨져가는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신의 의도'라고 주장하며 신흥종교단체를 이끈다. 두 편 모두 장르물의 쾌감을 안겨준다는 평가 속에 유아인이 핵심으로 호평받는다.

●해외 영화상에 다채로운 재능의 아티스트로

이에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영화 '소리도 없이'로 홍콩의 아시안필름어워즈와 캐나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말을 하지 못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호함 속에서 대사 한 마디 없이 몸짓과 표정으로만 연기해내는 어려움을 통과한 성과였다. 그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도전을 지나 조금 여유와 힘이 생겼다"면서 "치열하게 성공만을 바라는 작품에 몰두하기보다 여유와 힘으로써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게 가치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